

광주경총, 류재언 변호사 금요조찬포럼

“철저한 감정·인식·행동 파악...협상 성공 필수 조건”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3일 광주 서구 흘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12회 금요조찬포럼에서 류재언 변호사는 ‘성공하는 리더를 위한 협상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목표 설정·욕구·유형 분석 등 강조…첫 10분 대화 중요

거절도 리더 역량 중 하나…나·상대방 대화 빈도 ‘3대 7’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상대의 감정, 인식, 행동을 파악해야 합니다.”

지난 13일 광주 서구 흘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12회 금요조찬포럼에서 류재언 변호사는 ‘성공하는 리더를 위한 협상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류 변호사는 협상 성공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 ‘목표 설정’, ‘욕구’를 언급했다.

류 변호사는 “평시원으로 출발해 일본 골드만

삭스 자산운용 대표를 10년간 역임한 도키 다이

스케는 미팅에 나가는 영업사원들에게 항상 ‘오늘

만남의 목표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며 “상대

방을 만날 때 미팅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설명

했다.

이어 “협상할 때 우리는 이성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 같지만 감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인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 욕구가 내재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율리 ‘협상 첫 10분은 반드시 상대방 욕구를 충족시켜야 수월하다’며 “협상의 고수들은 이슈 만들기에 능숙하고 비가격적 요인을 적절히 활용한다”고 강조했다.

류 변호사는 또 다른 협상 성공 요인으로 상대방의 유형 파악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협상 상대방의 유형은 크게 영향력 표출

형, 성과 주도형, 관계 배려형, 정보분석형으로 구

분할 수 있다”며 “영향력 표출형은 외향적이면서

관계를 중요시하고,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

람이고, 성과 주도형은 결과 중심으로 움직인다. 관계 배려형은 주로 내성적이고 관계가 멀어지거나 불편해지는 것을 못 견뎌 하는 유형이다. 정보 분석형은 내성적이면서 성과 중심적인 유형으로 근거를 중요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계 배려형의 대표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 성향을 가지고 있어 거절을 잘 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거절을 미리 해야 불편한 상황이 오지 않는다. 잘 거절하는 것도 리더의 역량 중 하나다”고 당부했다.

류 변호사는 의사소통과 감정도 언급했다.

그는 “육아원칙에 따라 최적의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은 감정, 인식, 행동 순으로 설득하기 위한 대회를 할 때 저 사람이 호감인지, 비호감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대화 자세를 조언했다.

그는 “협상 전 시각·청각·공간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할 것인가도 전략이다”며 “협상은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피력했다.

이어 “나와 상대방의 말하는 빈도가 3대 7 정도 일 때 상대의 민족감이 높고, 대화 속 반복된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라”며 “하급자 대하듯 취조식 신문이 아닌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질문형으로 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뢰의 중요성도 함께 나눴다.

류 변호사는 “신뢰는 디지털 시대의 화폐다”며 “내가 상대방의 기대를 충족시켰을 때 인정받는 만큼 상대방을 신뢰하면 굳이 협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경영자총협회 금요조찬포럼 다음 강의는 오는 27일 광주 서구 흘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이광수 애널리스트가 ‘부동산 시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한국산업안전공단 광주본부
‘안전일터 지킴이’ 본격 가동

일진전기, 영광 태양광 송전선로 사업 수주

90㎿ 1100억원 규모…민수 시장 최장 거리

일진전기는 전남 영광군에서 진행되는 90㎿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약 1100억원의 송전선로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영광군 염산면 일원에 주케이아이엔이 조성 중인 ‘영광태양광 발전 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계통에 연결하는 공사로, 영광에서 함평을 거쳐 광주시에 이르는 약 54km 구간의 송전선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내 민수 시장에서 발주된 송전선로 공사 중 최장 거리이자 최고 계약 금액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진전기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전 과정을 책임지는 ‘풀 터키(Full Turn-key)’ 사업자로 선정됐다. 전력 전송의 핵심인 154kV 초고압 케이블과 관련 접속재 일체를 공급한다.

또한 영광에서 광주에 이르는 54km 전

구간에서 케이블 매설을 위한 관로 포설 및 토목 공사를 주도하며 마지막 단계인 전선 포설과 정밀한 접속 공사까지 전 과정을 통합 수행한다.

영광태양광 발전소는 90㎿급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로, 여기서 생산된 청정에너지를 도심권인 광주광역시까지 안전적으로 송전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초고압 전력망 기술이 필수다. 일진전기는 고품질 초고압 케이블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영광=정규발 기자 ykjgp98@gwangnam.co.kr

광주상의,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촉구

정부·국회에 건의문 전달…지방 투자 유인 강화 등 강조

광주상공회의소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의 조속한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상의는 최근 국무총리실과 기후에너지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 의지를 밝힌 데 대

가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최근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 의지를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전력 공급 구조는 지방의 대

규모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초고압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송전하는 방식이다. 장거리 송전에 따른 송배전 손실률은 약 3~4% 수준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수천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상의는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력 생산지 인근 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지방 산업단지의 투자 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송대웅 기자



롯데마트, 수입 돼지고기 전 품목 행사 ‘끌돼 DAY’ 롯데마트는 20일부터 25일 까지 6일간, 수입 돼지고기 행사 ‘끌돼 DAY’를 진행한다. 다가오는 3월 3일 ‘삼삼데이’ 컨셉의 대형 프로모션으로, 캐나다산 돼지고기 최대 50% 할인가에 준비했다.

곡성군 온라인 종합 쇼핑몰 “곡성몰”

꼼꼼한 생산자 & 알뜰한 소비자의 만남

“우리는 곡성몰 합니다.”

곡성몰 검색

<https://gokseongmall.com>

곡성몰에서 신선한 농특산물 구매하세요

매달 진행하는 이벤트로 다양한 혜택 받아가세요.